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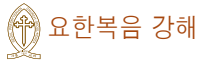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요 4:7-14)

이종윤 원로목사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배워야 지방을 통과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반해 직행 코스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1. 장벽을 초월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요 4:7)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희생이 없는 제물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해졌고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피곤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피곤해 있는 여인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가건적인 것으로 해석했던 니고데모처럼 이 여인도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대화는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그릇을 함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여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마땅히 교제해야 하는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2. 생수를 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 4:10)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주신 것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①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는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②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았는데(스 4장) 순금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요 기쁨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스킵바벨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3. 종교적인 탈을 벗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요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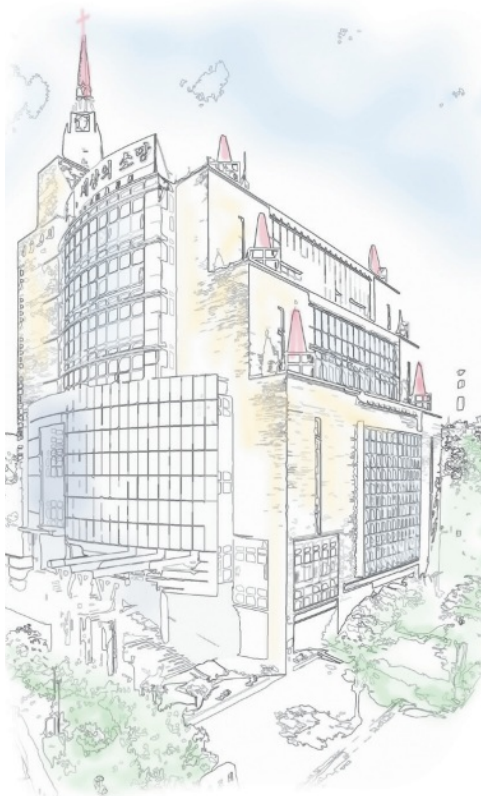
영적인 일에 관심조차 가져보지 못한 여인이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빈정대로 투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셔도 우리가 목이 갈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요 4:12) 그러면서도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게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껍질을 빨리 벗고 나와야만 진정한 참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예수를 10년 믿어도 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종교적인 껍질을 벗고 막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4. 야곱의 우물과 생수의 대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야곱의 우물은 다시 갈증이 생기는 우물입니다. ‘목마르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니 갈증이 없다는 말씀이며 구원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팔팔 쏟아지게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풍성하고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이 곳에 오는 자마다 말씀을 통해 생수가 팔팔 넘쳐 마음껏 마시고 그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 청빙 건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다

위임식은 피택자 임직식과 함께 오는 11월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 시에

교회는 지난 9월 5일(주),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 청빙 건에 대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다.

현 방역 수칙 상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모일 수 없어 부득이 1, 2, 3부 각 예배 시마다 나누어 투표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의 위임 청빙 찬반 의사를 묻은 결과 총 투표수 386표 중 헌법상 결의 요건인 2/3 이상인 369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이제 서울강남노회 올 가을 정기회에서 정식 허락을 받게 된다.

정기회에서 허락되면 지난 5월 16일(주) 개최된 제직회에서 담임목사 자격으로만 청빙된

손달익 목사는 오는 11월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 시 현재 훈련 중인 피택집사, 피택권사 임직식과 함께 위임식을 거쳐 서울교회 제3대 위임목사로서 정식 시무를 시작하게 되고, 위임목사가 시무를 하게 됨에 따라 교회는 위임목사도 도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교구나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할 부목사도 헌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청빙할 수 있게 된다.

설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에 오랜 교회분쟁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웠던 교회 사역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 수기 및 동영 공모 -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김은호
황수지(육사생도)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규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① ② 성도 확인과 투표용지 교부



③ 1부 예배 후 현 당회장 손달익 담임목사가 위임한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공동의회
④ 공동의회 서기 대행 이계홍 장로의 이번 공동의회의 안건 설명
⑤ 차도훈 장로와 안인호 장로의 성도들에게 투표함 확인 과정 ⑥ 공동의회 전경



⑦ ⑧ ⑨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며 진행된 투표
⑩ 개표 결과 발표 후 감사 인사를 하는 손달익 목사

사진 : 유은경 집사(편집부)

코로나로 인한 깊은 묵상의 시간

저희 가족과 일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일본기독교단 목사로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교회사역이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님들의 고령화로 주일예배는 3명에서 8명정도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단의 3,300명의 목회자들 중에 동경교구의 한국인으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며 내가 왜 일본에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일본을 알리고 선교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글로 한국에 일본을 알리고 일본에서 선교는 유튜브 설교로 알리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왜 일본을 선교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서 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간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이 없

어지고 방문 전도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일본무목교회 선교회'를 한국은 목회 목사님들과 한국 선교회들과 협력하여 일본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여 무목교회가 없도록 하는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와 문화 사회 부분에 깊이 관계된 분들을 시리츠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손달익 담임목사님과 교역자와 선교회의 위원분들과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일본 선교를 위해 유튜브로 잘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2. 일본 무목교회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3.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일본에 오면 교육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① 코로나 전 일본 선교사역 중 하나였던 노숙자 점심 제공

②③④ 편부모 자녀 혹은 소외계층 어린이들과 함께한 '어린이 식당 협력사업'

왜 일본을 선교해야 하는가?(1)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진정한 예배자 인지?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요?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사업가로, 교역자 선교사로 2021년 31번째를 맞이하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더 정확하게 물어보면 나는 일본나라와 일본 사람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일본에서의 유학생과 사업을 할 때와 사역자로서 많은 사랑을 일본사람들에게 받았지만 한국인으로 역사와 정치적 문제로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아픔도 있었기에 부끄럽지만 진심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부족함을 느껴 일본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 국화(日本國花) 벚꽃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쿠라(櫻) 옛한문을 찾아보면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남은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본을 선교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나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건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정신적이고 영적인 위로를 받고자, 사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속 받은 주의 자녀들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들은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계속)



예수를 입는 시간



역대급으로 무더웠다는 지난 여름이 훌쩍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이 슬며시 우리들 옆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된지도 한참 되었다.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우리의 삶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 처음에는 갈팡질팡 했지만 언젠가부터 익숙한 예배의 모습이 되면서 불쑥 불쑥 우리 신앙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감정이 든다. 이 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보자.

이런 의미에서 켄 시게마츠의 '예수를 입는 시간'을 추천한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과 평안을 원하지만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때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 위에, 깊은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자. 켄 시게마츠는 이 책에서 영혼을 위한 7가지 절대 습관을 제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망설이곤 한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따를지 결정

하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을 완벽하게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 혹은 몇몇 산을 더 올라 앞에 펼쳐진 지형을 더 분명히 파악한 뒤에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하지만 대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목적에 항복하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 주신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목상적인 동시에 행동적이며, 사적인 동시에 공적이었다. 예수님은 삶의 90%를 무명인으로 보내셨다.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신 적은 없지만 삶의 마지막 10%는 매우 유명하게 사셨다.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사셨지만, 마지막 3년 동안은 병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시며 사셨다. 대중의 환호에도 집착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은둔의 삶에도 집착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상관없이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든 그 소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우리는 그 소명만 따르면 된다.

-편집부 제공-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시작

구분	일시	교육과목	강사
	9월 12일(주)	구약개설	서명철 목사
	9월 19일(주)	신약개설	장석남 목사
	9월 26일(주)	예배모범과 주일성수	박미라 전도사
	10월 3일(주)	한국교회사	조원영 목사
	10월 10일(주)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당회(기획위원회)
	10월 17일(주)	교회행정 및 회계처리 과제물 제출일 (10월 25일)	당회(기획위원회)
면접 및 시험	11월 5일, 6일, 7일 중 택일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당회

등정



- 개인전 : 15교구 전광영 집사 모스크바 현대미술관 2022. 1. 26 - 3. 13
- 득남 : 조동수 목사 · 정은혜 사모
- 떡 제공 : 예완식 집사 · 송금자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13일	월	암 1-9		욘 36-42	
9월14일	화	욘, 온 1-4		시 1-13	
9월15일	수	미 1-7		시 14-22	
9월16일	목	나 1-3, 합 1-3		시 23-35	
9월17일	금	습 1-3, 학 1-2		시 36-44	
9월18일	토	숙 1-4		시 45-55	
9월19일	주일	숙 5-9		시 56-68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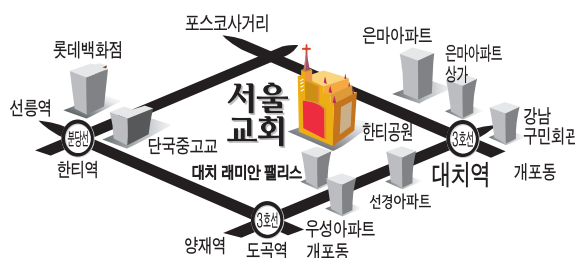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